

# 자발적으로 밥을 지은 여인의 공덕은...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5)

석 달 동안 '말 먹이'를 드신 부처님

수라연국에 바라문왕이 있었는데, 이름은 아가 달이며 총명하고 지혜가 많았다. 어느날, 수다타에게 물었다. "이 땅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싯다르타 태자가 부처님이 되셨는데 모든 천인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아가달은 곧 부처님을 뵈고 말씀드렸다.

"원컨대 부처님과 스님들께서 저의 석 달 동안의 하좌(夏坐·하안거)를 돌보아주소서."

지극하게 청하는지라 부처님께서 5백 명의 비구들과 함께 청을 받아들여 그 나라로 가셨다. 성읍은 지저분하고 백성들은 가난하며 부처님에 대

"몹시 굶주려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다 떨어졌고 드릴 것은 말 먹이는 보리밖에 없습니다. 스님들께서 잡수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과 비구들은 그러기로 했다. 말은 5백 마리가 있었는데, 말 한 마리가 날마다 두 되씩을 먹었기에 각각 반씩을 나누어 비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특별히 좋은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말은 하루에 네 말을 먹었다. 그 말이 먹이 반을 나누어 부처님께 바쳤다. 아난이 부처님 뒤편과 자기 뒤편을 받아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가 한 여인 앞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말했다.

"내가 여기에 인연이 있어 여기에 안거하고 있

습하셨다.

"앞의 여인이 만약 밥을 지었다면 마땅히 전륜성왕의 첫 번째 부인이 되었을 것이다.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밥을 지은 사람은 그 복이 한량없으리라."

이때 여러 나라의 아주 귀한 거사와 큰 부자 살박 등이 부처님께서 석 달 동안 말 먹이는 보리를 잡수셨다는 말을 듣고, 여러 공양거리와 갖가지 좋은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께 올렸다. 부처님께서 자자(自恣) 7일 전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성에 들어가서 아가달에게 안거가 끝났으므로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말하여라."

왕은 그때까지도 부처님이 말의 보리를 잡수신



삼화·강병호

한 믿음이 없었으므로 결식도 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우선 정사조차 없었다. 성의 북쪽 숲에 자리를 잡으신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이 마을은 가난하며 좁고, 백성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가 많으니 결식하기 어렵겠구나. 여기서 안거하려는 사람은 머무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뜻대로 하여라."

6일이 지나자 모든 비구들은 결식하기 어려웠다. 이때 목련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열매를 따는 나무가 있으니, 저는 그 열매를 가져다 대중들에게 공양하려 합니다. 울단열에는 저절로 나는 열매가 있고, 도리천에서는 수타미를 먹습니다. 제가 모두 가져다 대중들에게 공양하려 합니다. 달콤한 지미도 있으니, 저는 한 손으로는 모든 중생들을 높이 들고, 한 손으로는 땅을 뒤집어서 모든 비구들이 스스로 취하여 먹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은 목련의 신통력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말 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말 치는 사람이 말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왕족이시라 언제나 좋은 음식만 잡수셨었다. 이 밥은 너무 거칠고 험해서 몸에 좋지 않겠구나."며 밥을 물에 말아 드리자 부처님께서 그것을 잡수셨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난은 슬퍼서 목이 메었다.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먹어라."

아난이 "예" 대답하고 받아 먹어보니 맛이 보통이 아니었다. 실로 이것은 모든 천인(天人)들이 맛을 더해 준 것이었다. 아난은 한량없이 기뻐다. 두 여인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말

것을 모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왕의 청을 받으신 날부터 이 나라에 계십니다."

"누군가 공양을 드렸습니까?"

"부처님은 석 달 동안 말이 먹는 보리를 드셨습니다." 왕은 부처님을 청하고도 부처님을 공양에 소홀했음을 참회하며 부처님께 다시 머물러 주실 것을 청했다. 부처님께서 떠난다고 하자 왕은 석 달치 공양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공양거리를 길 가운데 흘뿌려 놓고 가시는 길에 밟고라도 지나가 시라고 했다.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공양이란 먹어야 하는 것이다. 밟고 밟다니 마땅치 않다. 그리고 그 동안 하지 못한 공양을 생각해 한꺼번에 공양함으로 참회하려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다." 부처님께서 왕의 공양을 백성들을 위해 배풀고 설법하시니, 왕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법안(法眼)을 얻었다. (중본기경) 하권과 (심승미사색률)에도 나온다.)

<경률이상(동국대역경원)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iholo@yjunbul.com

##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⑤



### '우리'로 사는 법 알아야 참불자

내가 나를 사랑 할 수 있는 삶

나는 늘 내가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뒤 돌아보곤 한다.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가지고 싶은 것과 내가 먹고 싶어 하는 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늘 하는 일이지만 거울 앞에 앉아 나를 살펴본다. 굳이 대중의 선방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시간에서 나를 들여다보며 지나온 많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을 감고 생각해본다. 육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살아온 부족한 삶 속에는 옥구슬 같은 삶이 있다. 그건 부처님과의 만남이다. 그야말로 보배로운 삶이었다고 믿는다. 부처님과의 만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인연으로 은혜로운 삶 그 자체인 것이다. 분시 착한 성품으로 바르게 사는 것도 보람 있는 삶이지만, 참회하고 또 참회하며 실천하는 삶도 보람 있는 삶일 것이다. 문득 문득 부처님 회상에서 배우고 느낀, 소중한 가르침이나 법문을 되새길 때 마다 나의 욕심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향기로운 꿈을 볼 때가 있다. 남을 사랑하기에 앞서 내 자신부터 바르게 되는 일이 먼저일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로 넘치고 있다. 선방의 스님들이나 보살들도 정진하는 이때에 우리들도 기복을 위한 나만의 기도보다는 참회진언이라도 부지런히 외면서 지나온 갈등이나 원망 다 버리고 맑고 향기롭게 새로워져야 할 때라고 생각해 본다. 아무리 아름다운 산천을 보아도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내가 내게 만족해야 바깥 경계가 바로 보이는 법이니 나를 다스려 나를 행복하게 살아가 하리라. 소림의 법우님들! 우리가 그동안 불법을 닦아 온 까닭은 부처님을 닮으려는 서원에서 비롯됐음이나, 함께 우상이 아닌 실상으로 모든 소원 다 이루시고 천년의 행복을 안으시길 축원 드립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바라보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2003년 3월부터 맡아 해오던 신도회장직을 그만두었다.

그토록 스스로 자각 없음을 알기에 거절 아니, 사양을 했지만 그대로 회장이란 단치않은 자리를 맡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부족하지만 나를 항상 채워주시는 큰스님과 대중 스님들의 격려, 신도님들의 사랑으로 5년 6개월의 회장직을 잘 치르고 오늘에야 수석 부회장직인 이성균님께 그 자리를 물려드리게 되었다.

그동안 마음 아픈 일들이 없었더라면 참으로 행복했을 도량인데 스님들의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한 회장으로서 죄송할 뿐이다. 그래서였을까. 축가를 부르는데 왜 목이 메고 가슴속으로 눈물이 차오르는지. 두 손을 모았다.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만큼이나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도량이 되기를,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선물을 나눠드렸다. 너무 좋아하며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행복했다. 집으로 돌아와 지나간 회장 임기동안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과분한 복이었다. 어찌 그 큰 자리에서 그런 사랑을 받았을까 싶다. 인사말을 할 때나 회지의 글을 읽을 때나 너무나 밝은 얼굴과 톡톡한 눈빛으로 들어주시던 그 고마움을 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평소에도 부처님 앞에만 서면 소림사 청심 장학회와 소림사 신도님들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축원 했지만 오늘부터 더욱 단단한 원력으로 기도 드릴 것이다. '감사합니다'를 가슴에 새기면서 지난 6년을 값진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다.

노보살님들이 꼭 안아주셨던 따뜻함과 젊은 아님들이 아쉬워 눈물 글썽이던 그 고마움을 부처님께 고할 때,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뒤에도 닦아도 눈물이 흘렀다. 분명 아쉬움보다 후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만 두겠다고 때를 쓴 것도 죄송스럽고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 했던 것 모두가 가슴에 남는다. 믿고 맡겨 주셨던 스님들 그리고 소림의 신도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드신 소문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빙의, 최면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 생생하게 담다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첫째, 지난 살아온 과정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전생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젠 생생하게 담았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북갤러리 Tel : 02/761-7005 / Fax : 02/761-7995

### 역학·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 상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부문제
  - 2. 최면심리 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학생 심리 상담
  - 3. 빙의 퇴마, 원인모론 병, 정신이상, 환시, 환청
  - 4.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범당정리
-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갑),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이정부 <비룡서사> 제행스님  
011-772-4606 / 031-842-8023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 마이크 목걸이

A 타입  
영주구기 25mm  
₩ 65,000

B 타입  
영주구기 16mm  
₩ 55,000

A+B (1set) ₩100,000

택배비 무료

주문전화

구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도암 (진각) 010-6657-5522  
대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유\*무선\*금\*공\*입금계좌(예금주:미륵사) 동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www.jawonet.com

##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2인용

1인용

● 크기  
1인용 : 100cm × 200cm  
2인용 : 150cm × 200cm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 덕이며, 제올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백파로부터 고객님의 보호 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불(희담석 60% + 제올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정신 집중이 잘 되고머리가 상쾌해지는

### 희담석 방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아래 결명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목의 비근함을 느끼시는 분  
피로가 누적된 분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정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정주 35,9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정주 SET - 84,000원

속면으로 이끄는 -

### 희담석 배개용 패드

**사용방법**  
배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뒤틀린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 이침에 일어나셔도 깨어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 서초구 서촌로 1719-48, 금강명당 B103호 TEL. 02/3479-2335 FAX. 02/3479-2905